



海外業界動向

미국의 전자산업, 경쟁력 현저히 감소

미 반도체자문위원회(NACS)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전략」을 발표했다.

NACS 회장인 로스박사는 미국의 전자산업은 철강, 자동차, 항공기 산업을 합친 수보다 많은 250만명의 노동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85년 이후 미국 전자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 저하했는데, 금액으로는 1,000억불에 상당할 것이라며 시장점유율의 저하와 함께 연구개발비가 삭감되어 「반도체 소비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자업체가 청신호를 발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미 반도체업체는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5가지의 제안을 제시했다.

1. 반도체 제조시설 및 종업원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
2. 신분야의 개척 등을 활발하게 실시함으로써 시장자체를 확장, 반도체의 수요증대로 연결.
3. 향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미 반도체산업이 하나가 되어 대응.
4. 장애가 되는 반Trust법을 수정하여 미 반도체메이커는 상호, 협조하여 기술 및 제품의 공동개발을 시행.
5. 컴퓨터의 도입 등으로 제조기술의 발전 및

원활한 공장운영에 노력하며 종업원의 교육을 충실히 하여 「고품질」 및 「능률화」 지향.

특정프레온 대체물 공동연구 추진

세계의 프레온 메이커는 특정 프레온 대체물의 안정성에 관한 일련의 공동연구 「PAFT (Program for Alternative Fluorocarbon Toxicity Testing-IV)」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5번째에 해당하는 PAFTV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대체물은 HFC-32로서 알려진 지플로로메탄으로 슈퍼마켓과 음식점, 식품수송용의 냉동장치 및 Unit형 공조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저온냉매의 대체후보이다. HFC-32는 가열성이지만, 조립은 선택함으로써 불연성 혼합물로서 사용가능한데, 에너지 효율이 좋은 뛰어난 냉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HFC-32는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수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중의 수명은 짧고 지구온난화기능도 낮다.

PAFT V에 참가하는 프레온 메이커는 Allied Signal, Report(미국), 旭硝子, 다이킨공업, 昭和電工(일본), 엘프 아트렘(프랑스), 로누프랜, ICI(영국) 등 8사이다.

또한 프레온 메이커는 AFEAS(Alternative Fluorocarbon Environmental Acceptability Stu

dy)를 조직하여 특정 프레온 대체물의 대기 및 지구표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ATRC, HDTV표준규격안 테스트 자격 인정

미국 HDTV의 지상파방송에 관한 표준규격을 제출하고 있는 6제안자의 하나인 ATRC(Advanced TV Research Consortium)은 지난 1월말 동Group의 System이 FCC 자문위원회 Working Group(SS/WP1)에 의하여 테스트를 받는 자격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同인정은 FCC의 테스트를 받기 위한 소위 최종관련으로 이것을 경유하여 각 제출자는 비로소 ATTC(Advanced TV Test Center)에 의한 일련의 테스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ATRC는 Pavl Sanotf 研과 Philips 研을 R&D의 핵으로써 북미 Philips, Thomson Consumer Electronics (TCE) NBC, 또는 최근은 Compression Laboratory가 첨가된 Consortium이다.

同Group의 시스템은 ADTV(Advanced Digital HDTV)로 불리는데 走査線數 1,050개로 Interlace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코닥, 포토CD시스템 판매 개시

미국 이스트만 코닥사는 '90년 9월에 발표한 CD사진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하여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 여름에는 북미, 서구, 일본 등 주요시장에서 40불 정도의 소매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동사의 Photo CD 시스템은 카메라 유저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업자에게 의뢰하여 CD(Compact Disk)에 기록하여 컴퓨터에 내장할 수가 있는데, 전용의 Photo CD 플레이어 등에 연결한 디스플레이(컬러TV 수상기 등)로 재생하여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용의 Photo CD 플레이어는 필립스가 개발

하여 발매한 것이다.

FUJI필름도 코닥으로부터 Photo CD 기술의 라이선스공여를 받아 동사의 계열 Laboratory에서 필름 화상을 Photo CD 디스크에 복사 서비스할 것을 금년 가을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92년형 Note/Book형 PC, 超薄型化 시대로 돌입

노트북형 PC의 경박화는 금년들어 더욱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FDD, PC업계에 의하면 '92년도판 노트북형 신기종은 현행 많은 기종에서 채용되고 있는 1인치 높이의 3.5인치, FDD에서 1/2인치 높이의 초박형 채용이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92년도판 신기종은 기존제품보다 30% 이상 얇아져 30mm 내외의 두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PC업계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薄型化의 현실에 맞추어 1/2인치 FDD에 강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FDD 업계는 1인치 이하의 각종 薄型機의 개발을 추진했으나 개발계획을 재추진하는 업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FDD 탑재 노트북형PC의 두께는 40~50mm 정도가 일반적인데 본체의 두께에 영향이 가장 큰 FDD의 신기종 탑재에 의하여 일제히 30mm 두께로 비디오 카세트와 비슷한 초박형 노트북형 PC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열해진 FDD 박형화 경쟁은 최근들어 가속, 14~16mm 승의 기종이 각사에서 개발되었으나 TEAC이 7월, 미쓰미전기가 9월에 계속하여 12.7mm, 신기종을 개발함으로써 PC업계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

TEAC의 신기종은 대만, 동남 Asia에서 생산하는 美系 PC업체 등에서 채용이 내정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미쓰미전기의 신기종은 작년의 COMDEX Show에서도 큰 호평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견

해가 강력해지고 있다.

TEAC, 미쓰미전기의 신기종은 기간부품에서 개발하여 초박형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뒤이어 Citizen시계도 현재의 15mm기에 추가하여 12.7mm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알프스전기도 연구개발중인데 제품화의 시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FDD의 대기업인三菱電機의 개발은 꽤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제품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치기 다음의 FDD는 어떤 사이즈가 될지,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14mm~16mm대의 기종을 제품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1인치 기와 사이즈상의 정합성이 있어 가장 얇은 1/2인치 機에 PC업체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同機의 채용에 의해 퍼스컴의 輕薄化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미디어 세계 수요 예측

일본의 자기미디어공업회는 최근 자기미디어 제품의 1992년의 세계수요 예측을 발표하였다.

세계수요는 오디오 테이프가 전년대비 2% 증가하여 약 19억 5,000만권, 풀 카세트의 비디오 테이프가 3% 증가한 10억 8,000만권, 무비용 테이프가 28% 증가한 약 1억 6,000만권, 플로피 디스크가 9% 증가한 약 26억매 등이다.

세계수요의 지역별 예측에 의하면 오디오 테이프는 일본이 2% 감소한 4억 200만권, 북미가 2% 증가한 4억 1,500만권, EC제국이 3% 증가한 4억 6,700만권, 기타 지역이 3% 증가한 6억 6,600만권을 나타냈다.

풀 카세트의 비디오 테이프는 일본이 2% 감소한 2억 3,100만권, 북미가 보합세인 3억 5,600만권, EC제국이 4% 증가한 3억 3,000만권, 기타 지역이 12% 증가한 1억 6,400만권을 예측하고 있다.

세계의 자기 미디어 제품 수요 예측

(단위 : 백만권, ()는 전년대비%)

		1991(추정)	1992(전망)
오 디 오 계		1,916(101)	1,950(102)
북미	407(102)	415(102)	
일본	412(94)	402(98)	
EC	452(103)	467(103)	
기타	645(104)	666(103)	
1/2" 비디오 (FC) 계		1,051(101)	1,081(103)
북미	353(101)	356(100)	
일본	235(93)	231(98)	
EC	316(104)	330(104)	
기타	147(112)	164(112)	
무비용 (8mm, VHS-C) 계		127(127)	163(128)
북미	32(145)	43(134)	
일본	51(119)	62(122)	
EC	37(128)	48(130)	
기타	7(117)	10(143)	
플로피 디스크 계		2,377(112)	2,590(109)
북미	1,213(110)	1,304(108)	
일본	324(120)	381(118)	
EC	628(110)	674(107)	
기타	212(112)	231(109)	

註 : • 오디오와 비디오 부문은 스테이프만 대상.
• 플로피디스크는 완성품을 대상
• 북미는 캐나다도 포함. EC는 가맹 12개국을 대상

선진제국에서는 거치형VTR의 보급이 어느 정도 올라서 안정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비 테이프(8mm, VHS-C)의 지역별 예측은 일본이 22% 증가한 6,200만권, 북미가 34% 증가한 4,300만권, EC제국이 30% 증가한 4,800만권, 기타 지역이 43% 증가한 1,000만권이다.

플로피 디스크는 일본이 18% 증가한 3억 8,100만매, 북미는 8% 증가한 13억 400만매, EC제국은 7% 증가한 6억 7,400만매, 기타 지역은 9% 증가한 2억 3,100만매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사이즈별로는 3.5인치가 59%, 5인치가 39%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光산업 생산동향

일본 光産業技術振興協會의 조사에 의하면

'91년 광산업의 총생산액은 작년보다 5,572억 엔을 넘어서 18% 증가한 3조 7,262억엔에 달했다. 그 내역은 광전송기기 및 장치가 2조 5,933억엔, 발광소자, 광 Fiber 등의 광부품이 8,616억엔, 광통신 시스템이 2,712억엔이 될 것이라고 한다. 광산업은 '90년도에 3조엔을 초과하는 규모가 되어, 기초산업의 확산과 함께 착실히 발전하고 있고, 신규참가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광기기·장치는 광디스크 장치, 광입출력장치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8% 성장한 3,928억엔의 증가를 보여 광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70%를 나타냈다.

한편, 광부품은 디스플레이소자, 수광소자, 태양전지 등의 신장에 의하여 생산액에서 전년대비 21% 성장한 1,473억엔의 증가를 또한 광응용 시스템은 전년대비 7% 성장한 171억엔이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를 용도별로 보면 통신분야가 12% 성장한 6,218억엔, 정보분야는 19% 성장한 2조 9,366억엔, 에너지분야는 14% 성장한 1,676억엔으로 예상된다.

LDP 수요전망

일본 송하전기는 금년의 LDP의 수요전망을 90만대, 해외 80만대라고 표명하였다. 작년에 비교하여 국내(일본) 19%, 해외 22%의 증가가 전망된다.

동사에 의하면 작년의 LDP의 일본내의 출하대수는 75만 6,000대로 제작년에 비해 12% 감소할 것이다. 한편, 해외는 아시아지역이 20% 증가한 32만대, 북미지역이 3% 증가한 30만대, 구주지역이 약 두배인 10만대, 합계 72만대에 달했다고 분석하였다.

금년은 국내(일본)가 작년의 하락에 반발하여 9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해외는 아시아 지역이 35만~36만대, 북미가 32만~33만대, 구주는 보합세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년의 해외시장에서는 구미시장의 경기둔화가 원인이 되어 신장이 10%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샤프의 초미니미니 오디오

Sharp는 가로폭이 38cm로 업계최소의 Compact Audio System 「空間美人」 CD-Q10을 3월부터 발매했다. 부피가 미니 미니컴포넌트의 1/3, 미니 컴포넌트의 1/10로, 극초소형 사이즈이다. 日産은 7,000대이다.

이 제품은 폭 37.9×높이 17.5×두께 21.5cm, 무게 약 5.8kg이다. 薄型을 실현할 電動 CD 트레이를 탑재한 것도 소형화에 공헌했다.

북해도의 고지에 자생하는 섬유와 목재 섬유를 적량혼합한 신소재 「호로파인」을 스피커진동판에 채용함과 함께 박력있는 중저음을 재생하는 「Active Servo Technology」를 탑재하였다. 低域에서 高域까지 바란스가 잡힌 박력있는 아름다운 사운드를 재생한다. 스피커는 최대입력 25w이다.

카메라 헤드 분리형 CCD카메라

일본 東芝는 최근 形狀인식과 부품의 위치결정, 검사 등에 적정한 카메라 헤드 분리형 CCD 흑백 카메라 「TK-C40MF」를 4월부터 발매한다고 발표하였다.

同카메라는 임의 시각의 한 화면의 정보를 끄집어 내는 Reset 스파트기능을 탑재하였다. 특정한 작업장소를 감시하여 화면 정보를 꺼내어 퍼스컴 등에서 화면처리가 가능하다.

카메라 Head는 크기 32×32×45mm, 무게 약 190g으로 Compact하다. Cable이 나오는 방향은 전면을 제외한 모든 방향이 가능하다.

日電, 중국에 교환기제조·판매 합작사 설립

일본전기는 중국 천진시 중환전자계산기공사, 천진시 우전관리국 및 주우상사와 합작으로 국용전자교환기 NEAX 61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한 신회사「천진일전전자통신공업유한공사」를 설립했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자본금은 41억 6,000만엔으로 중국측 2단계가 24억 9,000만엔, 일본전기가 14억 6,000만엔, 住友商事가 2억 1,000만엔을 출자하였다. 공장은 '93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인데, 연산 30만 회선의 생산규모로 할 계획이다.

중국은 국내통신망의 충실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100명 당 1대로 일컬어지는 전화기를 2,000년에는 동 3대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일본의 통신기기 업체는 이러한 중국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日電도 중국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협력활동에서 네트워크수주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다.

유럽의 JESSI와 RACE 추진현황

구주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프로젝트가 금년부터 제2단계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인 JESSI(차세대반도체소공동개발조직)와 첨단통신기술개발인 RACE였다. EC는 이 연구개발을 중요 Project로 설정하고 있다.

JESSI는 작년이 초기단계 계획을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구주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Eureka(구주고도첨단기술 개발계획)의 일환인 JESSI는 초기 계획 2년 사이에 300개의 제안 Project 중에서 약 70개를 실시하였다. 120개의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가하며 총투입인원은 약 3,000명이었다. 비용은 4억 6,000만 ECU(1ECU는 약 1.3불)로 참가기업은 50%, 참가정부는 40%, EC위가 10%를 부담하였다.

초기 Project는 메모리, 로직, 프레임 등 각 분야인데 16M DRAM, 16M EPROM 폭 0.7mm

조직 칩의 설계생산 기술, 露光裝置, 전자회로의 전자동설계 System, 선폭 0.3mm의 CMOS 구조 등이다.

EC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ACE(구주 첨단통신기술개발계획)도 금년 제 2단계에 들어갔다. '87년 부터 '91년까지 초기단계에 실시한 90개의 프로젝트로 통합 확대 광대역통신(IBC) 서비스의 '95년 상용화를 지향하고 있다. 4,000개의 기업으로부터 183개의 제안이 나오고 있다.

실시 Project는 8분야로서 ① IBC의 기술연구개발 ② 통신망 정보처리기능 ③ 이동·퍼스널통신 ④ 영상·데이터 통신 ⑤ 통합서비스 기술 ⑥ 정보보전기술 ⑦ 첨단 통신기술 Test ⑧ Test Infrastructure와 상호작용이다. 이 중에서 84항목의 실시를 결정했는데, IBC 기술연구개발과 첨단통신기술 Test관련이 주체가 되고 있다.

특히 통신Test 계획은 제조, 출판, 은행의 업무분야 뿐만 아니라 Teleshopping, 지역개발에도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EC는 또한 금년에 시작되는 본격단계의 응용분야에서는 HDTV, 디지털음성방송(DAB) 광대역ISDN, 이동셀룰러 무선, 자동안전 Electronics를 결정하였다. 이 공동연구과제로써 Chip 세트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비용총액은 4억 2,000만 Ecu로 분담은 참가기업 50%, EC위 15%, 獨·佛이 각 10%, 이탈리아 5.5%, 네덜란드 5%, 영국 2.5%, 벨기에 1.5% 등이다.

구주의 LAN기기 시장

네덜란드의 시장조사회사 International Data(IDC)에 의하면 구주의 '91년도 LAN(구내정보통신망)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63%의 신장을 나타냈다.

구주시장의 총액은 3억 3,940만불의 규모이다.

동사의 예측으로는 '95년까지는 구주에서 100만대 이상의 퍼스컴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구주LAN 시장의 톱은 노벨사인 Netware 286으로 45%를 차지하였다.

구주 자기테이프공업회,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단체 결성

구주 자기 테이프공업회(ETIC) 가맹기업은 교육과 오락, 통신 등의 분야에서 자기 테이프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달성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지적소유권 확보의 통일 룰 확립을 위하여 국제단체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ETIC의 설립 멤버인 BASF, FUJI, JVC, Maxell, 3M, Sony, TDK 등 각사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구주 각국이 자기테이프에 여러가지 率의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이 시장분할을 야기시켜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이익을 손상시켜 자기 테이프 메이커의 장기적 시점에 선 투자계획의 수행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ETIC는 우려하고 있다.

EC위, 일본제 복사기의 조사 재개

EC 위원회는 2월말에 반덤핑 관세의 과세기한이 완료되는 일본제 복사기의 대 EC수출에 대하여 조사를 재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EC 위원회는 '87년부터 일본제 복사기의 일부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2월에 과세기한이 끝났다. 이 때문에 구주업체는 ① 반덤핑 과세후에도 '88~'91년 사이에 일본제 복사기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② 과세를 정지하면 수입이 급증하여 구주 업체에 손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EC위원회에 조사재개를 요청하였다.

EC위원회에 의하면 조사기간중에도 반덤핑 관세의 과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독일의 전자산업 매출전망

독일의 자본재 Lease회사인 미트피난츠에 의하면, 독일 전자업계의 금년의 매출은 3.5%의 실질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예측은 좋아야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는 내외 모두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가 업계 설문조사를 기초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의 생산은 1,764억 마르크(작년 1,705억 마르크), 수출은 937억 마르크(909억 마르크), 수입은 935억 마르크(890억 마르크)로 수출입이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설비가동률은 작년의 86%에서 움직이지 않고, 투자의 신장률은 작년의 10%에서 7%로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기부문에서는 수익악화의 경향이 더욱 가속되어 비교적 튼튼한 기업도가 불안한 현실이다.

정보기기부문의 생산은 9%가 증가하여 3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시에 시장의 신장을 상회하는 추세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신장률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독일정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지원

독일정부는(研究技術省)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2건의 복합연구 Project를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同省은 '94년까지 2건의 프로젝트와 함께 2,500만 마르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나는 KORSO로 불리우고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그 올바른 동작을 보증할 방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하나는 REMO로 불리우는 것인데, 정보시스템의 기반과 신호전달경로를 구분하여 안정성 중시의 관점에서 그 재정의의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동독 전자산업 회복

독일전자공업연맹(ZVEI)은 최근 구동독 지역의 전자공업 생산이 1991년 여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92년은 10%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동지역의 생산은 '90년 7월의 통화통합이후 둔화하여 '91년 5월의 생산지수는 36.2('90년 제 3/4분기 월평균 100), 매출은 5억 9,510만 마르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작년 후반기에 접어들어 회복하여 10월에는 생산지수 42.7, 매출 6억 5,230만 마르크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종업원수는 작년 1월의 25만 2,800명에서 현재에는 15만명대까지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제조업 설비투자 감소

영 중앙통계국은 최근 영국제조업의 작년 설비투자액은 102억 7,300만 파운드(속보치)로 작년의 121억 4,200만 파운드에 비교하여 15.4%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관련투자는 3억 6,000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39%나 하락세를 보여, 자동차 판매의 침체를 뒷받침하였다. 건설투자는 14억 9,700만 파운드로 동 9.0%의 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최대의 지출항목인 공장·기계설비투자액은 84억 1,600만 파운드로 동 15%의 감소를 보였다.

작년 제 4/4분기만을 보면 설비투자액은 전년대비 0.6%, 작년 동기대비는 14% 각각 감소하였다.

필립스, 16대 9 와이드 화면 TV판매

Philips는 3월부터 구주에서 28"형의 16대 9 와이드 화면TV 「ML8916」을 발매할 계획이다.

와이드 화면TV는 日歐메이커가 벌써 36"형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단계 작은 사이즈의 28"형의 판매시기를 확정한 것은 Philips가 최초

이다.

이 제품의 가격은 독일에서 3,600마르크 전후로 예정되어 4대 3 화면의 종전 고급품과 거의 동일한 가격이다.

Philips는 다음달,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제국 네덜란드 등에서 판매를 개시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화면의 선명도를 상승시키는 100Hz IDTV 기술과 디지털 더블 스캔 기술이 채용되고 있다.

필립스, 케이블·광Fiber 부문 매각

네덜란드의 Philips는 케이블·광 Fiber 부문을 Siemens에게 매각할 것을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Philips의 동 부분은 종업원 1,400명, 연간 매출 5억 5,000만 길더의 규모이다.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을 거점으로 독일의 쾰른과 뉴른베르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양사는 중국에서 광 Fiber를 합작 생산하고 있다.

양사는 연내에 매각 수속을 완료시킬 계획인데, Siemens는 동사업을 매입함으로써 Cable 사업을 강화하고 또한 Philips는 통신시스템 부문에서 Cable 사업을 처분함으로써 통신기 본체사업에만 전념할 계획이다.

에릭슨, 디지털 이동통신 활동 강화

스웨덴의 에릭슨이 영국과 미국의 디지털 이동통신업계에서 수주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체 통신의 발전속도가 빠른 영국에서는 PCN(Personal Communications Networks)의 기반시설 수주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TDMA(시분할다중 액세스) Dual Mode방식의 셀 룰러 시스템을 수주, 세계시장에서의 발판을 구축했다.

영국에서는 자회사 Ericssonuk가 PCN 사업자의 유니텔과 Mercury Personal Commu

nications(MPC) 쌍방에서 교환기, 중속기, 소프트웨어 등 PCN 서비스용 Infrastructure를 수주하기도 했다.

PCN은 포켓 사이즈의 단말을 이용한 디지털 전화 서비스이다. 영국에서는 '93년 중반을 목표로 동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유니텔은 Thorn EMI, Northern Telecom, US West의 3사가 공동 출자한 콘소시엄이다. 한편 MPC는 Cable & Wireless(C&W)의 자회사이다. 영국의 PCN 사업자로써는 유니텔, MPC와 마이크로텔 등이다.

노키아, 미국의 셀룰러 전화기 시장 공세

핀란드의 최대기업인 Nokia가 미국의 휴대용 셀룰러 전화기 시장에서 공세를 가할 계획이다.

동사는 미 Motorola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전화기 메이커이다. 금년에는 신제품을 투입,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Motorola를 추격할 계획이다.

Nokia는 연간매출 40억불, 종업원 2만 7,000명으로 북구 유수의 기업 Group이다. 이동통신, 공중통신, 가정용 전자기기의 3부문을 전자사업의 핵으로 갖추고 있다.

이 3사업 중 이동체통신은 전사업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Nokia가 금후 조준을 맞추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이다.

지난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에서 무게 280g이라는 초경량의 셀룰러 휴대전화기 「101」을 출품하였다.

「101」은 Hand Held형으로 세계의 주요 방식에 대응 가능한 기종이다. 동사는 머지 않아 「101」을 799불로 판매할 계획이다.

중국인 컴퓨터 생산고 예측

중국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90년대말에는 중국의 컴퓨터 생산고가 9억 1,000만불이 될 것이며 또한 미국과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적소유

권 마찰은 장기적으로는 독자소프트웨어의 육성을 촉진하여 중국의 컴퓨터산업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0년대말 중국의 컴퓨터 생산고 약 49억원(약 9억 1,000만불)의 내역은 대형기와 중형기를 합친 것이 1%, 소형기가 4%, PC가 95%이다.

미국과의 지적소유권마찰의 결과 '91년 10월부터 중국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인정받았다. 이것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코스트 상승에 의한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인정됨으로서 중국 국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생산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육성을 서두르고 있는데 '91년부터 일본의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에 해당하는 기술인정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외, 각 주요도시에 Training Center를 설치하여 대학으로의 유학생도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보내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중국에는 40만명의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있는데 그중 50%가 Operator, 40%가 Programmer, 7%가 SE(System Engeneering), 3%가 관리자 등이라고 한다.

중국, 통신망 정비에 경주

중국에서는 금년에도 통신망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전부의 금년의 투자예산은 150억원으로 작년의 79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자금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배분된다.

우선과제는 혼잡한 장거리통신회선의 부담경감과 광통신 시스템의 연장인데 후자는 4,000km의 부설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전화망정비도 시급하다. 또한 보급이 어느 정도 추진된 지방에서는 광 Cable과 마이크로파 회선에 의한 장거리 통신망에의 접속개선이 시행되고 있다.